

데스크 시각



송기동 체육부장

장면 1: 지난 1일 광주 서석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광주일보 주최 제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천황리그 유한킴벌리와 로즈스나이퍼의 16강 경기. 유한킴벌리 4번 타자인 최형필(43·자영업) 선수는 7회초 1사 2루 상황에서 힘차게 방망이를 휘둘러 2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경기는 유한킴벌리의 5-0 승.

그는 “경기 전에 동료에게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켜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우승을 차지한 한국 야구대표팀 경기를 본 후 본격적으로 사회인야구를 시작하게 됐다.

수의사인 박준규(28)씨는 인왕리그 버스터즈의 투수다. 같은 날 4·19 야구단과 경기에서 호투, 팀의 9-6 승리를 이끌며 승리투

야구가 있어 행복합니다

수가 됐다. 8년여 전부터 주말마다 힘차게 야구공을 뿌리고 있다.

장면 2: 지난 2012년 초 뇌 과학학자 야구팬인 정재승 KAIST 교수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58명의 야구 마니아들이 이색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백인천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인 연구 주제는 ‘우리나라 프로 야구에서 왜 4할 타자는 사라졌는가?’.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원년에 백인천 MBC 청룡감독 겸 선수가 0.412로 4할을 넘긴 이래 지금까지 ‘왜’ 4할 타자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지적 호기심에 따른 연구였다. 이들은 KBO(한국야구위원회)의 30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통계분석을 시도했다. 그리고 4개월 후 집단지적인 지성연구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다.

다양한 직업군 야구 즐겨

야구가 일상생활에 확산되고 있다. 프로 야구가 아닌 사회인야구 이야기이다.

사회인 야구팀은 2012년 기준 광주 300여개, 전남 60여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만360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전체 사회인 야구 동호인 수는 대략 2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나이 대도 20~50대로 폭넓고, 직업도 천

차만별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야구를 좋아한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이들 역시 프로야구와 마찬가지로 리그를 나눠 경기를 펼친다.

직장인 팀들만의 직장인 야구리그도 있다. 이들은 주말에 시간을 쪼개 여가생활로 야구를 하며 직장 선·후배와 화합을 도모하고 일하는 이름을 붙인 연구 주제는 ‘우리나라 프로 야구에서 왜 4할 타자는 사라졌는가?’.

특히 야구 동호인들은 선수 출신에게 레슨을 받으며, 타격과 스윙 폼을 교정할 정도로 기량연마에 구슬땀을 흘리기도 한다. 열정만큼은 프로선수 못지 않다고 자부한다. 이후 한국프로야구 32년 역사에서 장효조(삼성·1987년 3할8푼7리)와 이종범(해태·1994년 3할9푼3리)만이 4할대에 육박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테드 윌리엄스(1941년 0.406) 이후 4할 타자 백이 끊겼고, 일본 야구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4할 타자 미스터리’ 연구를 시도한 야구 마니아들의 결론은 뭘까? 이들은 “30년간의 각종 야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프로야구) 시스템이 안정화돼 4할 타자는 다시 나오기 힘들다”고 밝혔다.

100년간의 미국 프로야구 결과를 분석한 미국 진화생물학자 스티브 제이 글드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결론이다. 그는 “야구라는 생태계는 시간이 갈수록 최고와 최저 사이의 폭이 줄어들며 안정화된다. 거듭된 경쟁에 따른 진부적인 경기수준 상향 평준화가 4할 타자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폈다.

연습장 등 인프라 부족

야구를 몸으로 직접 뛰며 하는 동호인이나 데이터를 분석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마니아 모두 야구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 아마 야구인들이 야구를 즐기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주말에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대부분 부족하다. 동호인들은 휴먼터 날리는 하천변 구장일지라도 경기를 맘껏 펼 수 있는 경기장이 많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가 지난 1일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11월까지 2개월여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대회는 48개 팀이 참여해 토너먼트 대결을 펼친다. 팀의 명예를 건 아마 야구인들의 열전을 기대한다.

/song@kwangju.co.kr

社說

개방화장실 찾기도 어렵고 불결해서야

많은 시민이 도심을 걸다가 갑자기 웅변이 마려워 곤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를 대비해 광주 시내 일선 구청이 1000여 개의 민간 건물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불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는 5개 구청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모두 963곳에 달하고 있다. 자치구들은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 부실로 이용자들의 불쾌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개방화장실을 늘리기로 해 예산낭비를 비판도 받고 있다. 개방화장실이 들어설 건물들은 특별한 지원 없이 관리·책임만 지운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방화장실은 시민들에게 작지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이다. ‘문화수도 육성’과 ‘선진창조도시 건설’ 같은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광주시가 개방화장실처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책 하나 매프롭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광주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제대로 실천하기 바란다.

광주 어린이집 40%가 법규 위반하다니

광주지역 어린이집의 불·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40% 정도가 각종 법규를 어겨 감사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김선호(교육의원·서구) 의원은 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내 각 구청이 지난해 1월1일부터 금년 7월31일까지 관내 1248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500여 곳을 감사한 결과, 207곳이 각종 법과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아동 허위등록이 76곳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안전관리 부실, 급식 관리 부실, 교직원 허위등록, 재무회계 기준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불·탈법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끊이지 않는 고질적 비리는 공공 위험이다.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중 등록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불법사태가 여전하다는 데 있다. 보조금 정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혈세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일 수 없다.

어린이집은 이외에도 어린이 사고에 따른 차량 안전관리 부실문제가 비일비재했고, 최근에는 보육교사의 어린이 학대, 급식의 부실 제공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광주 시내 어린이집이 1248곳에 달하지만 고작 24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처벌도 솥방망이와 불과하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과징금 처분과 원장 자격정지 등이라는 게 이를 말해 준다.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 소홀은 교육의 질과 서비스가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애꿎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당국이 인력을 늘려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불법사태가 여전하다는 데 있다. 보조금 정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혈세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일 수 없다.

은펜클럽



김창군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土’를 칠판에 쓰면 문과 학생은 ‘흙’로 읽고, 이과 학생은 ‘플러스마이너스’로 읽는다고 한다. ‘염소’에서 동물을 떠올리면 문과, 화학기호 ‘Cl(Chlorine)’이 연상되면 이과 성향이라고도 한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물이 온다”라고 대답하면 문과이고, “물이 된다”고 답하면 이과라고 한다. 이렇게 양분된 성향이 선천적인 것인지, 나아가 바뀔만한 것인지 의문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초기에 문과(인문

문·이과 구분에 대하여

사회계열) 또는 이과(자연과학계열)로 미래 직업군을 가르치고, 어느 한 쪽에 맞춰 대입 수능을 준비하게 된다. 물론 교차지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선택의 순간 다른 쪽 학문에 대해서는 답을 찾게 된다. 현행 교육과정상에는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입 수능 및 내신과 무관한 교과는 응당 관심 밖일 수밖에 없다.

영화 ‘은교’의 서지우는 문학과 관심이 많은 무기공학과 학생이었지만, “(공대생이) 별이나 똑같은 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고백한다. 반면 프랑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나 ‘뇌’가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의 융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둘의 차이는 타고난 능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교육 제도의 차이에서 온 소산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만 있다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은 사실 일본에서 시작된 것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문물을 신속히 받아들이기 위해 서구 유람단을 두 팀으로

나눈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덕분에 일본은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 단시간에 세계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후발 주자로서 역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는 최초 개척자(first mover)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 애플과 스마트폰 특허를 놓고 심각하게 대립했던 한 기업이 인문학도를 채용해 SW엔지니어로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SCSA)을 시작했다. 2017년까지 4만명 이상의 초·중·고 학생을 교육하겠다는 ‘주니어 SW아카데미’도 문을 열었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 인재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창조경제란 자본과 단순 노동을 떠나 인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사람’에 있다. 그래서 꿈과 끼, 융합과 전문, 도전, 글로벌, 평생학습 역량이 발휘된 인재를 창의인 재로 정의하고, “다빈치프로젝트를 통한 무한상상실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중 관심이 가는 대목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문·이과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문과와 이과를 분리하는 현행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을 놓고 10월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해 계획이라고 한다.

대입제도가 교육의 블랙홀이라는 말이 있다. 대입 제도의 변화가 초·중·고 교육과정, 사교육 시장, 학생 진로의 방향성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은 기술과 인문의 교차점에 있다.”고 했다. 문·이과 구분 폐지가 학생들의 학습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세계적 추세가 융·복합 인재 양성이란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장두석 한민족생활문화연구원 이사장

환절기에 열이 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은 면역체계가 살아있다는 좋은 신호다. 염증반응은 백혈구가 질병과 싸운 결과물이고, 이때 항체가 열을 만들어 낸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리고 암세포는 열에 약하기 때문이다. 통증은 몸이 항체의 일종인 천연 인터페론을 만드는 과정이다. 재채기나 콧물은 독소와 미생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현상이다.

이처럼 열이나 염증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해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데 서양의학은 열, 염증, 콧물을 미생물이 만들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환생체와 소염진통제를 처방한다. 몸은 40도가 넘는 고열에도 문제가 없지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암

환절기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몸살이’

세포는 40도 이상에서 모두 파괴된다.

특히 갑자기 홍역은 열을 많이 내는 데 열은 들어온 바이러스균을 태워죽이기 위한 수단이다. 어린 나이에 홍역, 감기 등으로 열이 많이 나게 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막고자하는 몸의 치유행위이다.

감기는 병이 아니라 몸살림이다. 조상들은 열이 몸에 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열이 나면 열이 더 나도록 하였다. 몸은 스스로 40.5도 이상 올릴 수 없으므로 43도 이상 열을 올리기 위하여 뜨거운 무극에 열물인 고춧가루를 듬뿍 타 안주를 삼아 열을 내주는 술을 마셨다. 그리고 군불을 지핀 뒤 두꺼운 이불을 덮어 해로운 바이러스를 태워 죽이고 땀을 내고 가쁜히 일어나 일터로 나가 살 수 있었다. 지혜로 빛어낸 생명살림의 방법이라 하겠다. 지금은 더 간편하게 43도 물에 발물(죽탕)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좋은 열을 해독제나 합성약물로 억제하지 않으면 암을 비롯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질병이나 감기증상이 나타날 때 생기는 열이나 염증은 백혈구가 만들어내는 방어체계다. 미국의 버크 쿨너 교수는 “열을 내리

는 소염진통제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 쓰지 말아야 한다. 열은 면역체계에 결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약을 통해 열을 내리면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건강한 육체만이 열을 올릴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내며, 열이 나는 것은 몸을 지켜주는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증거이다.

감기 증상이 나타날 때 면역체계가 기능을 하기도 전에 소염진통제로 열과 염증과 통증을 없애버리면 면역체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합성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소염진통제와 해열제가 피의 흐름을 억눌러 항체의 생성과 이동을 막아 면역세포와 침입자의 싸움을 막아 오히려 약화하면 열과 염증이 골수까지 이르러 골수부전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이 백혈병이라고 하는 혈액암이다.

서양의학에서는 감기가 바이러스에 의해 온다고 하지만 틀렸다. 초기 감기환자에게 리노바이러스가 발견됐으며 리노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킨다고 발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리노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라졌다. 다시 아데노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킨다고

했지만 이것 역시 건강한 사람이 발견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감기 바이러스’라고 발표된 숫자가 2500가지나 된다.

이런 사실은 감기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감기는 박테리아나 성물질 등의 침입으로 면역력이 약해질 때 이를 몸에 알려주는 경고 증상이지 질병이 아니다. 따라서 약과 가공식품 등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면 골수는 파립구를 3일 만에, 적혈구는 120일 만에 되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감기라는 질병은 없다. 예로부터 감기란 ‘몸살이(몸을 살린다)’라고 하여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보았다. 세계에서 감기에 약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갓나예를 비롯한 전 국민들에게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부작용이 많은 감기약이나 백신같은 합성화학약물을 팔며 이익을 탐욕하며 먹고, 짜고, 쓰고, 새콤달콤한 음식을 조리해서 먹으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은 대폭 줄어든 것이다.

無等鼓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중세 유럽에서도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영아 살해’ 사건의 범인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가해졌다.

1532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공포한 뒤 근세 절대주의시대 형벌의 전형이 된 ‘카롤리나 법전’에 따르면, ‘영아살해범은 산 채로 땅에 묻고 발뚧을 박아 수장을 시킨다’고 되어 있다. 아무

런가 하면, 당시 젊은 변호사였던 괴테는 이 사건을 자세히 관찰했고, 훗날 파우스트에서 ‘그레트렌 바크’으로 작목화했다.

당시 재판은 수잔나의 비천한 사회적 배경이나, 술을 먹어 그녀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아이 아버지에게 대한 조사 결과를 모두 무시했다. 또, 여성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편견 속에서 좌절하고,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수잔나가 끝내 아

영아 살해



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회구조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지금이야 처벌이 가벼워졌다고는 하지만 영아 살해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영아 살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억압적’ 사회구조나 취약계층 여성의 열악한 처지가 과거와 크게 달

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자신의 배 속에서 나온 아이를 제 손으로 죽인 어머니는 또 다른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괴테의 그레트렌은 제 아이를 죽인 뒤 미쳐버렸다. 제2, 제3의 그레트렌을 막을 수 있는 안전관이 절실하다.

/홍행기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전자담배 중독성·부작용 여부 면밀히 검토해야

금연이 대세다. 예전에는 금연과 관련한 인사말 중에 하나가 “담배 끊으셨습니까?”였는데 요즘은 “아직도 담배 피우십니까?”로 변했을 정도로 흡연은 죄악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돼 있다.

그로서 담배를 끊기 위한 사람을 위해 금연 보조제나 전자담배 같은 게 많이 나와있다. 담배인지 아닌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은 니코틴이다. 니코틴이 없는 것은 금연보조제(의약품)로 허가돼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액체를 전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역시 적잖은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

전자 담배가 담배를 끊기 위한 목적인데 불구하고 전자담배 자체가 담배 역할을 할 정도로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걸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전자담배는 1갑이나 1개비 단위로 계산이 되지 않아 흡연량 조절이 쉽지 않다.

물론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걸 이용하지 않더라도 담배를 끊기만 한다면야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거지만, 담배 자체가 워낙 중독성이 강해서 쉽사리 끊지를 못하니 전자담배 같은 보조제를 쓰는 것이다.

그러나 보조제에 중독이 되는 일은 또 다

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단지 니코틴이 없다는 이유로 담배가 아닌 것이고, 그게 완전히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즉 니코틴이 인체에 해로운 것처럼, 전자담배에서도 역시 또 다른 화학적 성분이 인체에 100% 도움만 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금연을 하고자 하는 흡연자들은 전자담배만 맹신할 게 아닌 듯하다. 그리고 전자담배 제조업체를 역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만들어 주기 바란다. ▲오선진·광주시 동구 서석동

<p>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p>	<p>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p>
<p>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00-96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팀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